

나이는 숫자에 불과 茶열정 만큼은 '청년'

국내 '차 인구'가 300만을 헤아린다는 요즘, 차 마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차 한 통 없는 집이 드물고, 사무실이나 가게에는 하다못해 티백녹차라도 갖춰져 있다. '일상다반사(日常茶飯事)'란 말뜻대로, 차를 마시는 일이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탓이다.

하지만 한국제다 서양원(73) 회장이 50여 년 전 차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다. 밥도 먹고살기 힘든 시절이었으니, 씁쓸레한 맛에 비싸기까지 한 차가 관심 밖인 것이 당연했다.

"차는 신제품 아니라 정신까지 건강하게 하는 음료입니다. 최근 '웰빙'이다 '건강식품'이다 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우리는 오랜 세월 '차 마시는 민족'이었습니다. 다만 그 맥이 한동안 끊겼을 뿐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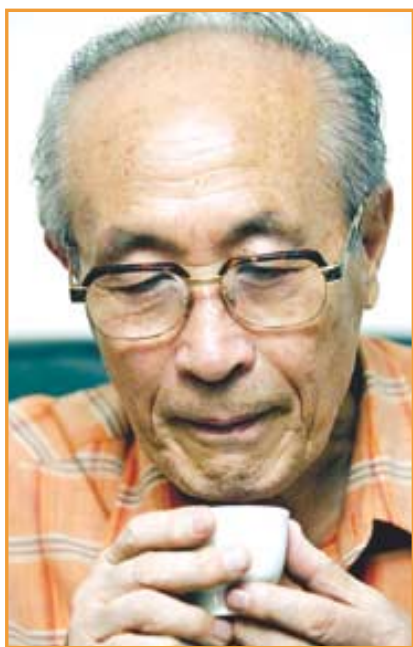
차에 대한 서 회장의 관심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아대 농학부를 중퇴하고 남전(현 한전의 전신)에 근무하고 있을 때였다. 알루미늄 공장에서 착색제로 쓰기 위해 홍차를 수입하는 것을 보고 서 회장은 고향인 전남 광양의 백운산 주변에 흩어져 자라던 차나무를 떠올렸다.

배가 아프거나 설사할 때 찻잎을 달여 마시는 일이 흔했기 때문이다. 58년에는 '우리 차 문화를 일으켜 세워 보자'는 마음에 가족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회사를 그만 두 뒤 순천에 '한국홍차'라는 공장을 설립했다.

자신의 평생을 걸어야 할 차 산업에 뛰어들었다. 차나무 자생지를 찾아내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이 때부터다. 외딴 섬까지 뒤져가며 차 군락지 200여 곳을 찾아내는 작업은 이후 17년 동안 계속됐다.

하지만 커피가 일반인들의 마실거리로 활개를 치고, 차라고 하면 스님들이나 마시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을 때가 아니던가. 5년 동안 아무런 수익 없이 차를 키우는 일보다 판로를 개척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녹차를 선물하면 차는 버리고 나무로 만든 차통만 갖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그러다 79년 본사를 지금의 광주 소태동으로 옮긴 후 서서히 일기 시작한 '녹차운동'의 불을 타고 조금씩 판로가 열리기 시작했다.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차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만족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바로 뒤쳐지는 것이 차이기도 합니다."



17년간 전국 돌며 자생지 200여곳 발굴 대중화 위해 '설록차' 이름 기업에 보시 "현대적 시스템 도입이 차 산업 살길"

많은 차인들은 서 회장이 '50년 차 외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힘을 '보살심(菩薩心)'과 '청년정신'이라고 말한다.

좋은 것은 나누어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서 회장의 지론이다. 때문에 첨단기계를 도입해 질 좋고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역점을 뒀다. 요즘도 한국제다에서 생산하는 '작설차'는 다른 제품에 비해 3분의 1정도 싸다. '작설차'라는 이름도 30년 넘게 써 왔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았다. '작설'은 혼자 독점할 수 없는 우리 차 고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1980년대 화장품 산업으로 유명했던 태평양 차 산업으로 이끈 것도 서 회장이다. "대기업이 차 산업을 시작해야 대중화가 이루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서 회장의 열정을 높이 산 태평양 서성한 사장은 회사 중역들의 들끓는 반대를 무릅쓰고 차 산업을 시작했다. 한때 녹차의 대명사로 불렸던 태평양의 '설록차'라는 이름도 서 회장이 아끼던 것을 선택 내어준 것이다.

서 회장은 97년 차 문화 보급을 위해 광주 무등산 자락에 효당 스님이 지어준 호를 딴 '운차(雲茶)문화관'을 열어 무료로 개방하기 시작했다. 99년에는 사재를 털어 '다성(茶聖)'으로 불리는 초의 선사(1786~1866)의 동상을, 스님이 주석했던 대흥사 일지암에 건립하기도 했다.

"초의 스님은 차와 선은 똑같은 이치(茶禪一味)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동상을 보며 스님의 뜻을 기리고 우리 차 문화를 보다 널리 알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서 회장은 또한 주위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라고 강조한다. 고회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차에 관련한 그는 여전히 '청년'이다.

"전통이 또 다른 골레나 편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차 문화 역시 산업적인 면을 생각한다면 무조건 '수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 회장의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 8월 서울 압구정동에 개원할 '강남 차생원'이다. 젊은 사람들이 차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는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 '젊은이의 거리'에 차 문화 체험관을 열게 된 것이다.

차 업계 최초로 '신지식인상'을 수상하는 등 지금까지 60여 차례 표창장과 공로패를 받은 서 회장지만, 올해는 더욱 잊지 못할 '상'을 하나 받았다. 바로 목포대학 명예공학박사학위다.

"명예박사학위는 우리 차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는 모든 분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박사학위를 계기로 무한대의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차문화의 첫걸음을 다시 내딛는다는 마음으로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자녀들과 며느리, 조카 등 가족 중 16명이 차계에 종사할 정도로 '다가(茶家)'를 이룬 서양원 회장에게 차는 이제 자신의 전부다. "마음을 수행하는 방편으로 차를 마시게 된다면 신체의 건강 뿐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을 것입니다. 초의 선사는 <종다송>에서 술 마시는 민족은 망하고 차 마시는 민족은 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0621222-2902 hankooktea@koreasme.com)
글=여수형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한국제다 서양원 회장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일요법회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자녀 및 입시기도 목련사랑법회
-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 오후 3시 특별대비주기도회
- 매월셋째 화요일 오후 2시 ~ 4시 부산 동 선 회 법 회
- 곤지암터미널 - 우리절 셔틀버스 운행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일	시간	법회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삼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 특별기도

- [1]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 [2] 천도의 명절 백중기도 2004년 7월 11일-8월 30일(만50일간)
- [3] 사랑의 명절 칠석기도 2004년 8월 15일-8월 22일(만7일간)

[제가자의 마음가짐-3] 행여만일 배푸는바 있을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온갖것을 말끔하게 능히버리고 마음속에 애착함이 없어야지다
여러대중 한자리에 모일때에는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여러인연 원한법을 죄다버리고 온갖지혜 완벽하게 이뤄지이다
여러가지 액난들을 만나게되면 모름지기 발원하되 모든중생이 마음대로 자재하게 이루어지고 행하는데 장애없게 하여지이다 [華嚴經淨行品]에서